

2017. 9.

KOR
VIET
NAM

한국 경상북도 베트남 호찌민 이야기

통계로
TALK

CHINA

• 하노이

LAOS

CAMBODIA

• 호찌민

2015년 기준



화산 이씨(花山 李氏)... 베트남에서 유래한 한국의 성씨

(유래) 중시조인 이용상 왕자는 베트남 최초의 자주국가인 리왕조의 왕자로 1226년 정란을 피하여 황해도 웅진군 화산면 정착(고려 고종 화산군으로 봉함), 몽고군에 항전

(양국의 가교역할 수행) 베트남에서 베트남인과 동등한 법적 대우 및 왕손 인정, 베트남 정부는 해마다 리 왕조가 출범한 음력 3월 15일이면 종친회장을 비롯한 종친회 간부들을 기념식에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

대한민국과의 관계

1992.12



한국-베트남 수교

1955. 10 월남 공화국 승인

1956. 05 외교 관계 수립

1964. 09 ~ 1973. 3 한국, 베트남전 참전

2001.08



20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2009.10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한-아세안 FTA('07)

• 한-베 FTA('15)

1992년 5억불, 2016년 451억불

수교 이래 양국간 교역액은
90배 성장

2위 일본(3,468건), 3위 대만(2,514건)

對 베트남 외국인 투자... 한국 1위

1988. 1. 1. ~ 2017. 7. 20(누계기준)

한국 **6,180건**(552억불)

한국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에 따른 동반진출 투자가 증가

1위 중국(2,114억불), 2위 미국(1,097억불)

한국의 3대 교역국... 베트남

2016년 기준

총교역 **451억불**(5.5%)

베트남, 한국의 **4위** 수출국, **8위** 수입국

한국, 베트남의 **2위** 수입국, **4위** 수출국

對 베트남 수출 326억불(전체 수출액의 6.6%)

對 베트남 수입 125억불(전체 수입액의 3.1%)

성장하는 베트남, 매력적인 시장

TPP, AEC 등 FTA확장을 통해 동남아 투자유치 거점으로 부상

對 베트남 투자 **한국 1위** (6,180건, 4,619개사 진출) 전체 외국인 투자 23,737건



매력적인 투자시장 베트남 정치사회적 안정성, China Risk회피 대체 생산거점

낮은 무역장벽
TPP의 최대 수혜국

對 TPP회원국 수출
전체수출액의 **40%**

낮은 인건비

생산직 초임 \$250/월
약 **28만원/월**

우수한 노동력

30세 미만 젊은 인구 절반
전체인구의 **50%**

유망한 소비시장

높은 경제성장률
한국 2.6% **6.68%**

▶ 노동집약형, 단순조립형 산업의 베트남 선호현상 뚜렷. 글로벌 전기전자기업의 베트남 집적 추세 확산(삼성, LG, MS Nok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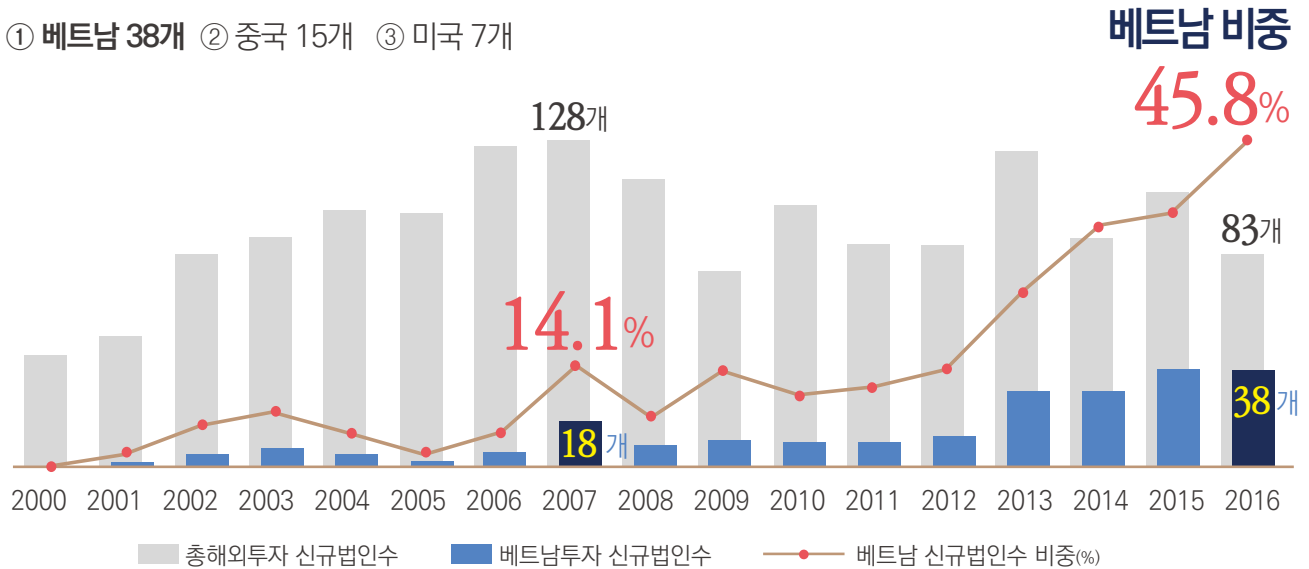
경북-베트남의 경제·통상 확대

경북기업 150여개 베트남 진출(누계)

2016년 기준

경북 해외투자(신규법인수) 절반이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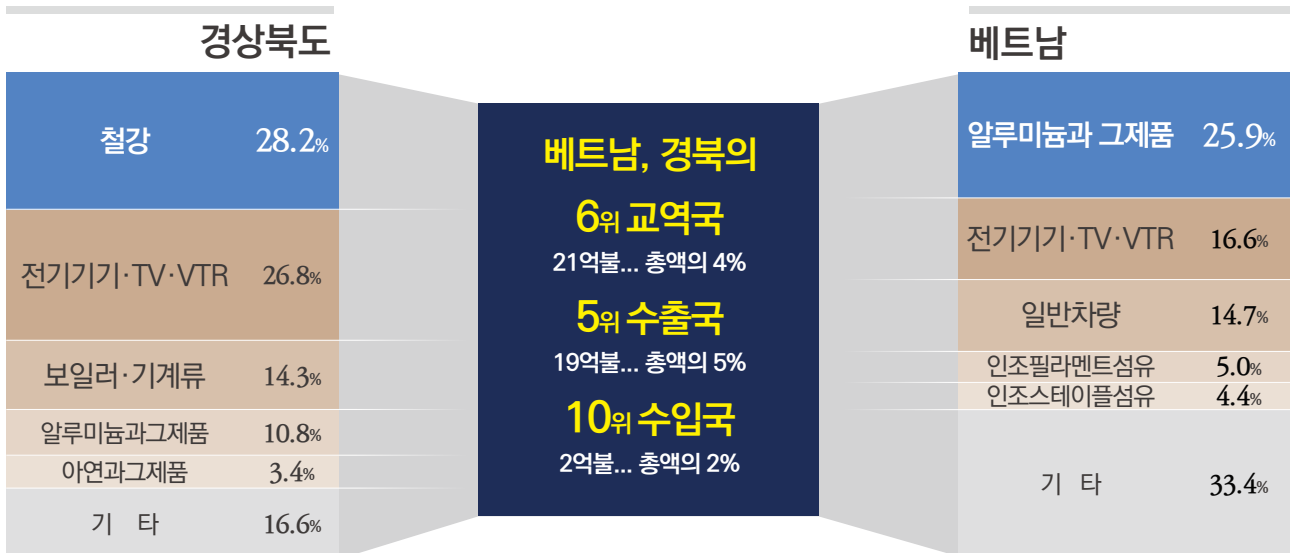
① 베트남 38개 ② 중국 15개 ③ 미국 7개



※ 경북의 베트남 진출 주요기업 주로 호찌민과 하노이, 그 인근 省으로 진출

호찌민 포스코건설베트남, 대영전자비나(삼성전자 1차 밴드), 메가젠임플란트, 엠앤아이(주)
 하노이 포스코(냉연), 고려인삼, 대한스틸 비나코리아, 유니크 테크노비나, 동양이앤씨
 박닌성 보광하이텍비나, 씨엔아이, 베트남피엔엘, (주)쓰리에이치비나콤, 지스비나, 유아티비나
 바리어봉파우성 포스코베트남(냉연 FH, CR제조, 판매), 부민비나, 아이에스비나, 강동건설

경북, 對 베트남 교역 확대 21억불('16년) : '06년 5억불(4배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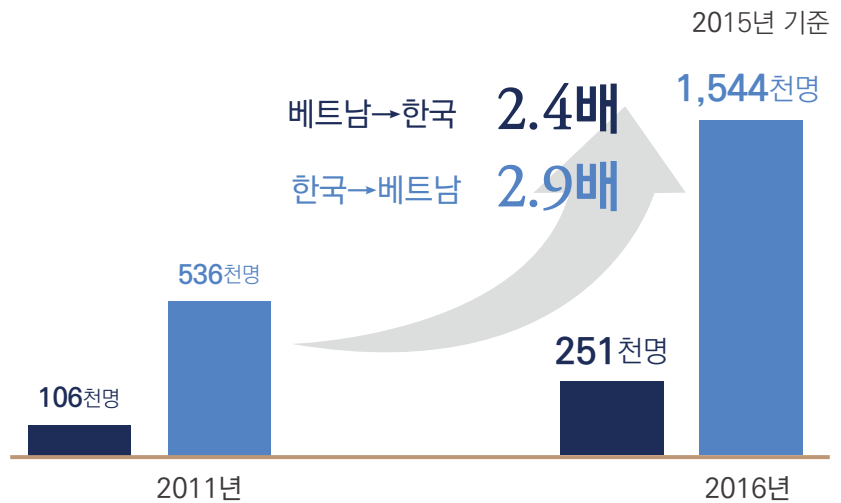
경북의 對外 교역(503억불) ① 중국 140억불 ② 미국 89억불 ③ 일본 48억불

수출(385억불) ① 중국 117억불 ② 미국 81억불 ③ 일본 25억불 ④ 인도 19억불 ⑤ 베트남 19억불
 수입(118억불) ① 일본 23억불 ② 중국 23억불 ③ 호주 19억불 ④ 미국 8억불 ⑤ 러시아 5억불

더욱 가까워지는 경북(한)-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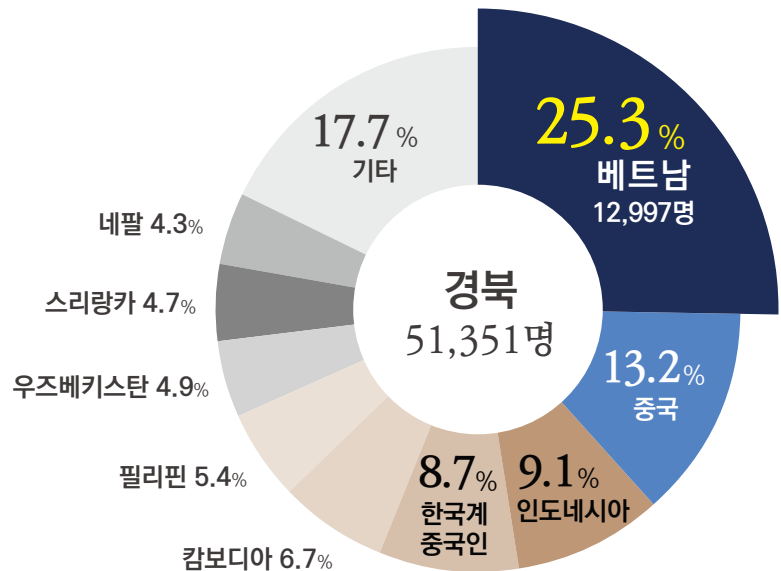
상호방문

한-베 상호 방문객
2배 이상 성장
(2011년 대비)



등록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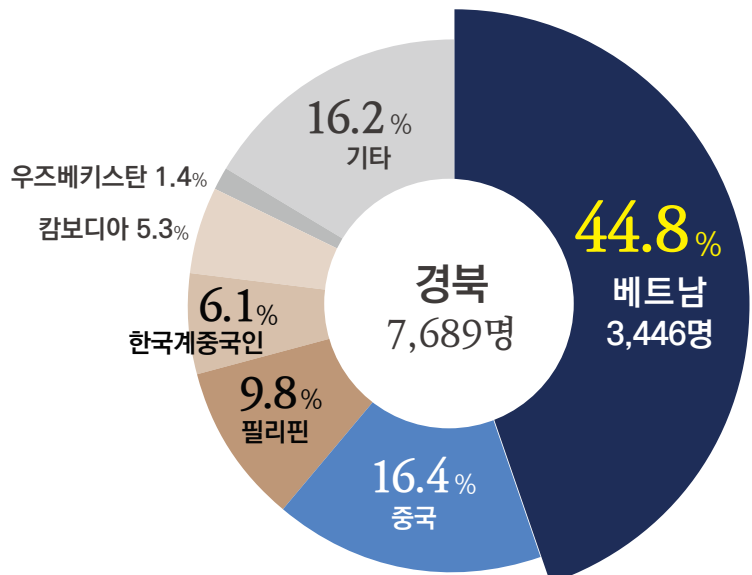
경북내 베트남인
외국인중 최다
13천명



※ 한국내 베트남인 14만명, 베트남내 한국인 15만명 (호찌민 10만명)

외국인배우자

경북내 베트남인 배우자
3천 4백명 외국인
배우자중 **1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주제 문화교류를 통한 아시아 공동 번영
기간 2017. 11. 11. ~ 12. 3.(23일간)
장소 베트남 호찌민市 일원

규모 30개국 참가, 300만명 관람 예상
내용 공식행사, 공연·전시·영상, 심포지엄, 통상로드쇼 등

국가 문화수출 상품 1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98년 시작, 국내 최초 문화엑스포로 **한류 확산 및 국격 제고에 기여**
- 총8회, **해외(3) : ('06) 앙코르와트 → ('13)이스탄불 → ('17)호찌민**

陸路에 이어, 海路실크로드 개척

2013 이스탄불-경주엑스포 2017 호찌민-경주엑스포



문화교류를 통한 경제엑스포, 국제외교+비즈니스의 장

- **한베 경제교류확대 국제포럼**(9.7 한-베 경제교류활성화 상호협력 논의)
-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60개사 참여, 21개사 2천140만불 수출상담)
- **한베 비즈니스 컨퍼런스**(기업인 등 200명) 및 **수출상담회**(50개사, 바이어 100명)
- **경북 바자르**(K-우수상품관, K-뷰티관, 경북 농식품 홍보관), **한류 우수 상품전**
- **무역사절단 파견**(10회, 200개사), **국제전시박람회 참가**(133개사)
- **한베 청년공감 로드쇼**(100명), **청년창업기업제품 해외판로 개척 지원**(20개사)

2017. 9.

**K
O
R** 한국 경상북도
베트남 호찌민
이야기
**VIET
NAM**

통계로
TALK